미국의 진면모 3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차 례

맥카시즘과 반공히스테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는 전시조건에 빙자하여 국내에 수립해놓은 반동적이며 폭압적인 통치체제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유지하며 전후 미국에서 고조된 인민대중의 투쟁기세를 어떤 방법으로 좌절시키고 전쟁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1946년 5월 미국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날 정황이 조성되였는데 이에 바빠맞은 트루맨은 《나는 정부를 반대하여 파업을 벌리는 모든 로동자들에 대하여 미군무력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줄것을 요구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로조를 반대하는 법적조치들을 취하고 파업자들을 연금, 지어는 구류까지 할수 있는 권한도 정부에 줄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쟁기간 앙양된 흑인들의 인종평등념원을 억누르기 위하여 부활된 3K단이 곳곳에서 십자가들을 불사르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흑인인사들에 대한 살해행위를 감행하는 등 인종주의가 더욱 로골적으로, 가장 횡포

한 폭력적형태로 급증하였다.

미씨씨피주출신 상원의원 시어드 빌보는 《뜨거운 피를 가진 미씨씨피의 모든 앵글로색슨인들은 …흑인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력설하였으며 유젠 탤머쥐는 《앞으로의 4년동안에 죠지아주에서는 단 한명의 흑인도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 덕에 죠지아주지사자리를 따낼수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너의 에이킨지구에서는 경찰이 군대에서 제대된지 불과 세시간밖에 안되는 한 흑인의 두눈을 도려냈다는 소름끼치는 통보까지 전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후에도 그러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미제는 사회주의혁명의 불길이 당장에 미국땅을 휩쓸어버릴것이라는 과대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국내에서는 악랄한 미제의 반공광증으로 하여 공산당이 한번도 강력해진적이 없었으며 지어 대공황시기때에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보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미제는 쏘련과 동맹하여 손을 잡고 히틀러를 반대하여 싸우기는 하였으나 반공은 여전히 미국의 제1의 국시로 되고있었다.

더우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날로 장성강화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의 반동지배층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위협을 더더욱 강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적색피해망상증에 가장 미친자들은 극우익보수정객들이였는데 이자들은 지어 민주당내에서까지 유력한 공산분자들이 활동하고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비난전을 시작하였으며 이 반공망상증은 중국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있던 《아메리씨아》라는 자그마한 잡지사를 습격할때 거기서 몇건의 중요한 정부문건들을 압수한 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이르게 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트루맨은 1947년에 무려 300만명을 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충실성조사를 진행할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로부터 미행정부는 안전보장상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하였다.

현대판마녀사냥이 시작된것이였다.

1948년과 1952년 대통령선거시 극우익보수세력들과 공화당은 민주당후보들을 반대하는데서 광란적인 적색공포증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에 감염된 민주당내 우익세력까지도 자기 당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그와 같은 방법에 매여달리였다.

1940년대말에 산생된 반공히스테리는 종교지도자들,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들 그리고 기타 영향력있는 인물들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고 고조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는 반공을 해야만 《애국자》로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트루맨이 연설에서 내뱉은《빨갱이, 사기군, 공산동조분자》들은 미국땅 그 어디에나 숨어있는듯싶었으며 사람들은 서로가 고발행위를 일삼기 시작하였다.

문학예술계의 유명인물들이 요시찰인물들로 등록되였으며 여러 저명한 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도 소위 공산분자들의 이름을 제공할것을 거부한 죄로 감금형을 언도받게 되였다.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적지 않은 학교교원들과 대학교수들이 해고되였으며 《친공》잡지들과 도서들이 도서관들에서 사라지게 되였다.

로조선거들과 지어는 교원-학부형협의회들에서조차 반공은 반대인물들을 공격하는 기본전술로 되였다.

어용로조단체들을 장악한 로동귀족들도 반대파들에 대한 공격에서 반공을 전술로 써먹었다. 미국산업별로동조합회의는 1949년의 전국대회에서 공산당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는 리유로 11개의

산하조직들을 자기 대렬내에서 축출하였는데 이 산하 조직들의 회원수는 도합 90만명을 넘었다.

도처에서 그야말로 세계를 경악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신고들이 수많이 제기되여 말 한마디, 걸음 하나를 잘못짚어도 공산분자로 몰리우는 판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9년 9월 쏘련이 첫 원자탄시험에서 성공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였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기만 하는 사회주의의 힘에 당황해난 미국보수정객들의 분노에 찬 반공웨침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50년 2월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윌링시의 한 연단에 나타나 목이 갈리도록 반공을 선동하는 히스테리환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미국에서 악명높은 맥카시즘이라는 반공광대극을 만들어내고 연출한 국회상원의원인 죠세프 맥카시였다.

연설에서 맥카시는《우리가 무기력하게 된 원인은 …바로 국가의 대우를 그처럼 잘 받아온자들의 반역행위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미국무성까지도 완전히 공산병에 들었으며 국무성에서 가장 위험한자는 바로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이라고 력설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날 그는 자기에게는 국무성내에 잠입한 공산분자 205명에 대한 명단이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후 그는 그 수자를 57명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81명으로 늘구었다.

그러나 문제는 수자가 아니였다.

당시 각종 추문들에 얽혀 심중한 정치적위기에 직면하고있던 맥카시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출로는 당시 미국사회에 범람하고있던 반공히스테리병을 적극 조장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948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타격을 받은 공화당은 그의 이러한 광증에 적극 동조해나섰다.

처음에 맥카시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친공분자로 몰아 처형하게 함으로써 획기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맥카시의 짓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았으며 지어는 7명의 공화당출신 상원의원들까지도 자기들의 동료인 맥카시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의 《공포, 완고, 무식, 무자비성의 리기적인 정치적수단》을 공개적으로 단죄하였다.

상원의 한 위원회는 국무성에 대한 맥카시의 공격은 터무니없는 사기와 협잡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카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로스 알라모스연구소에서 원자탄제작에 참가했던 사람을 간첩으로 흡수하고 지도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된 로젠버그부부사건을 비롯한 무근거한 증거들을 렬거하면서 음모에 대한 재판, 편좌법의 활용, 황당한 거짓말들을 련속 지어내며 자신의 반공광증을 정당화하느라고 미쳐날뛰였다.

1954년 미국에서는 궁극에 가서 공산당에 입당하는것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한다고 볼수 있는 《공산통제법》이 상원에서는 전원일치로, 하원에서는 265표 대 2표의 가결로 통과되였다.

이 법안의 기본발기자였던 허버트 함프레이는 표결직전에 《우리는 모든 문을 철저히 막아놓았다. 이제 이 쥐새끼들은 절대로 덫에서 빠져나가지 못할것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거짓말도 분수가 있지 보는 사람마다 공산분자라고 하는 맥카시의 반공광증은 정말이지 그 도수를 넘어섰다.

마침내 상원을 비롯한 미국의 반동지배층들까지도 허용할수 없는 계선을 훨씬 넘어선 맥카시의 당치않은 주장과 유치한 예측, 광기어린 언행들이 이제와서는 오히려 아이젠하워대통령행정부와 공화당의 영향력행사에 큰 장애로 되여 역효과

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미국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맥카시즘에 대한 비판과 조소의 목소리가 더더욱 높아만 갔다.

하는수없이 1954년 상원의 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일명 《군부－맥카시청문회》로 알려진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맥카시의 만용과 추악한 말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였다.

맥카시를 비롯한 미국의 극우익반동지배층이 벌린 현대판마녀사냥인 맥카시즘의 막심한 후과로 하여 고통을 겪고 처형을 당한 애매한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아이젠하워대통령행정부의 부대통령이였던 닉슨은 대통령행정부는 《수천명에 달하는 …공산분자들과 그 동조자들, 그리고 안전보장상 위험분자들을 정부기구내에서 축출하였다.》라고 득의양양하여 호언하였다.

실제적으로 아이젠하워의 임기 첫 3년동안에만도 1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련방정부기관들에서 해고당하였다.

맥카시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원자탄의 비밀을 공산세계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여 사형언도를 받은 로젠버그부부였다.

로젠버그부부의 사면을 요구하는 시위행렬이 백악관주변을 뒤덮었으나 미국반동들은 1953년

그들부부를 뉴욕주에 있는 악명높은 씽씽형무소에서 처형하였다.

전세계는 라지오로 이 소식을 들으며 미제의 반공히스테리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미국땅을 소란케 한 맥카시즘의 진상은 바로 이렇다.

참으로 그것은 중세기 유럽 각지를 휩쓸던 마녀사냥의 실행자들도 무색케하는 무식, 유치, 치졸, 공포, 수치의 광증이였다.

랭전소동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가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실현해나가자면 마땅한 구실이 있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미제가 들고나온것이 《공산주의위협》설이였으며 그에 따라 미친듯이 벌어진것이 랭전소동이였다.

1947년 3월 12일 국회상하량원합동회의 연탁에 나선 해리 트루맨은 그리스와 뛰르끼예에 대한 4억US＄의 지원자금제공을 국회가 승인할데 대하여 요구하였다.

트루맨은 연설에서 그 무슨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만일 그리스가 공산세

력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이웃에 있는 뛰르끼예에 즉시적이며 심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중동지역이 혼란과 무질서속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였다.

트루맨은 계속하여 그리스국내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관건적인 역할을 놀고있으며 그리스와 접한 뛰르끼예에는 적대적인 쏘련과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의 사태들은 미국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들고나왔다.

트루맨의 연설의 골자는 쏘련을 억제하는 군사기지들을 세계각지에 꾸림으로써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미국의 절대적우위권을 확립하자는것이였다. 그의 연설에서 튀여나온 악의에 찬 말마디들은 그후 거의 반세기동안 미국의 반동정책 작성자들에게 있어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이날 그의 연설을 들은 2명의 국회의원들인 죤 에프. 케네디와 리챠드 엠.닉슨도 후날 대통령직을 차지하였는데 이들 역시 트루맨의 이 연설에서 제시된 사상을 그대로 자기들의 반공정책들에 반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질서는 매우 혼란되여있었으며 그리하여 분쟁들이 일어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로 되여있었다.

경제적위기는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고있었다.

공장들과 수송 및 통신체계들, 어떤데는 지어 전체 산업지구가 완전히 페허로 되여있었다. 농업생산은 대폭 감소되였으며 집없는 사람들은 먹을것과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 방황하였다.

한편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세계무대에는 큰 세력공백지대들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진보와 반동과의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실례로 그리스와 중국에서는 진보세력과 반동세력사이의 국내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다.

민족해방운동의 앙양과 군사경제력의 약화로 유럽의 제국주의렬강들은 차지하고있던 많은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하여 새로운 국가들이 제3의 세력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있었다.

미제는 군사기지들과 자원, 시장들을 제공해줄수 있는 이 나라들을 저들의 괴뢰국가들로 만드는 한편 본토와 식민지주변뿐아니라 그로부터 썩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도 그 무슨 《방위》를 위한 군사기지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다른 모든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랭전의 출현에서도 미국의 대독점자본가들의 요구는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미국반동지배층은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호전적이며 주동적인 대외정책이 실시되여야 한다고 보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최대공급자로 되였다. 그런데 유럽이 겪고있던 경제적난국은 미국의 무역을 심히 위협하고있었다.

미국무성의 한 고위관리는《만일 이러한 공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백만명의 미국기업가들과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강철, 공작기계공업은 밀, 목화, 담배와 함께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있었으며 미국의 잉여상품판매는 당시 미국의 경제에서 관건적인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미제는 또한 아연, 석, 망간과 같이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중요한 원료들을 끌어들여야 할 절실한 필요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랭전이전시기부터 미국반동지배층이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던 경제적팽창은 전후 대외관계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미국호전분자들이 전후에 새롭게 수립작성한

새로운 군사전략들 역시 랭전정책의 조작에서 산파의 역할을 놀았다.

미공군사령관 칼 스파쯔는 공산세력의 그 무슨 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전후에 도래한 《항공전의 시대》의 군사적도전들에 성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선은 국경선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 설정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갖 얼토당토않은 구실과 론거들을 련발하면서 미제는 해외군사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한 기지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힘과 빠른 속도로 세계 그 어느 지역들에 대한 공격작전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게 하여줄것이라는것이 미군부호전분자들의 생각이였다.

《미해군은 어디로 지향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군장관 제임스 포레스털이 《바다가 있는 모든 곳》이라고 답변한것이 그 실례였다.

미국의 탐욕과 야망은 만족을 모르는것이였다.

그러한 모든 탐욕과 야망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였다.

전쟁, 오직 전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이 바로 미국이 찾은 유일한 출로였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몇몇 제국주의렬강들이 세계를 좌우지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가버린것이였다. 민족적독립과 자주, 평화와 진보를 지향하여나가는 세계의 진보적력량의 거세찬 흐름을 막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것이였다.

그런데로부터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이전시기와는 다른 방식의 침략정책을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생겨난것이 바로 악명높은 랭전정책이였으며 랭전의 기본목표는 사회주의나라들이였다.

1946년 2월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 참사 죠지 캐넌은 워싱톤에 장문의 전보서한을 발송하였다.

캐넌은 이 서한에서 미국과 쏘련과의 호상리해는 불가능하며 미국은 쏘련을 견제하고 봉쇄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미국반동지배층은 오직 강경만이 쏘련에 대한 유일한 태도로 된다고 간주하게 되였다.

다음달 이전 영국수상 쳐칠은 미국의 미쏘우리주의 풀톤에서 연설하면서 동유럽나라들은 쏘련이 친 철의 장막에 의하여 서방과 단절되여가고있다고 불어댔다.

같은 연단에 앉아 쳐칠의 연설에 련방 머리를 끄덕이던 트루맨은 쏘련의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서는 미영동반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일대 공세에로 들어간다는 선전포고였다.

1947년 3월 트루맨이 국회에서 악명높은 《트루맨주의》를 발표한지 4개월후 미국무성 정책국장으로 임명받은 캐넌은 봉쇄리론을 제시한 기사를 제출하였다.

잡지 《포린 어패어》에 《X씨》라는 필명으로 기사를 낸 캐넌은 자기의 글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질서를 교란하려는 기미를 쏘련이 보이기만 한다면 미국은 그 어디에서나 확고한 봉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루맨의 교리를 반영한 캐넌의 이 기사는 랭전정책의 기둥전략으로 되였다.

미제는 랭전을 개시하면서 쏘련의 군사적위협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쏘련의 군사적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너무도 당치않은것이였다.

군사적측면에서 놓고볼 때 당시 쏘련은 동유럽지역외의 다른 지역들에는 무력을 전개시키지 않고있었다. 붉은군대무력은 기껏해서 쏘련국경으로부터 얼마 더 벗어나지 못한 범위내에 전개되여있었다.

대신 미군무력은 태평양상의 주요섬들과 남조선, 일본, 필리핀,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각지에 전개되여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누가 위협으로 되고 누가 위협의 대상으로 되는가는 너무도 명백한것이였다.

한편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쏘련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떠듦으로써 국방예산을 늘이는 방법으로 대독점자본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줄것을 노리고있었다.

더우기 미국의 착취계급은 공산주의혁명이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할것이라는 공포로부터 쏘련이 세계정세가 복잡한 틈을 리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및 경제적리해관계를 위협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감을 안고있었다.

랭전정책의 주요기안자로서의 역할을 논 캐넌은 후날 《미국은 비인간적이며 악의에 찬 적수로서의 쏘련의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이러한 외곡된 견해로 하여 미국은 랭전시기 세계공동체를 뒤흔드는 위기들이 발생할 때마다 외교적방법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고백하였다.

쓰딸린은 한 연설에서 《로씨야는 공격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로씨야는 공격당하고있다.》라고 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쏘책동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의 지배층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루맨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국내전쟁에 쏘련이 개입하고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의 봉기군은 영국의 후원을 받고있는 부패한 현 정권을 반대해나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다, 봉기세력중에는 공산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쏘련은 뛰르끼예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반동지배층이 쏘련을 유일한 적수로 보면서, 또 쏘련이 생각조차 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리고 쏘련은 결코 추구하지 않는 문제들을 들고나오면서 쏘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장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미상무장관 월레스까지도 트루맨의 강경정책은 곧 원자탄과 경제적위협을 외교적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강경은 학교마당의 장난꾸러기나 기업가나 또 세계렬강에게도 아무러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그 무엇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우리가 강경해질수록 로씨야도 더욱 강경해질것이다.》라고 하였다. 화가 난 트루맨은 즉시에 월레스를 해임시켰다.

당시 인기있던 기자 월프 리프맨은 1947년에 발표한 저서 《랭전》에서 봉쇄정책은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지역과 부차적인 지역을 구분하지 못한 《전략적인 괴이함》이라고 지적하였다.

리프맨은 만일 미국지도자들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들을 전략적인 지대라고 간주한다면 국가의 자원과 힘은 얼마 못가서 다 고갈될것이라고 하면서 쏘련이 세계를 차지하려 한다는 트루맨의 확신에 찬 주장도 배격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에 너무도 중점을 둔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안한 국내문제에 더 신경을 쓰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환장이 된 미국통치배들에게 있어서 그러루한 비난이나 비판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트루맨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그리스의 반동지배층을 극력 지지하면서 엄청난 원조를 주었으며 중국국내전쟁에도 적극 개입해나서면서 국민당반동세력에 대한 지원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미제에 의하여 세계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기쁨도 맛보지 못한채 또 한차례의 새로운 세계대전과도 같은 랭전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하였다.

휘두르는 핵몽둥이

1953년 미국대통령자리에는 공화당출신의 전쟁호전광 드와이트 디.아이젠하워가 올라앉았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유럽주둔미영련합군총사령관, 전후에는 미륙군참모총장, 나토군총사령관의 직급을 가진바 있는 아이젠하워는 《감람향기보다 화약내가 더 구수하다.》고 곧잘 떠벌이군 하는 전쟁호전광이였다.

아이젠하워는 트루맨행정부시기에 고안되고 추진되여오던 랭전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면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봉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나갔다.

아이젠하워의 첫째가는 보좌관이 바로 죤 포스터 덜레스였다.

프린스턴대학과 소르본느대학을 다니고 변호사로 된 덜레스는 베르사이유협상에 미국대표단의 재정 및 배상문제담당고문으로 참가하였으며 1924년의 도즈안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여 도이췰란드독점자본의 부활을 추진시켰다. 1949년에 국회 상원의원으로 되였으며 1950년에는 국무성고문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조선전쟁을 막후에서 조작한 조선전쟁도발의 장본인이였다.

덜레스는 또한 일본에도 기여들어 《대일단독강화조약》체결을 추진시킴으로써 일본을 미국의 철저한 손아래동맹자로 길들이는데서 크게 한몫하였다.

덜레스를 가리켜 미국의 한 출판물은《덜레스만큼 …비타협적인 반공사상을 소유한 사람은 랭전투사들중에도 거의나 있어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바로 그러한 악명높은 덜레스가 아이젠하워행정부의 국무장관직을 차지하게 되였다.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대외정책실현에서 도미노리론을 극력 류포시켰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에서 공산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그 주변나라들이 도미노효과에 따라 련속 공산세력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는것으로서 미국의 지원이 없게 되면 작고 약한 나라들은 련이어 공산주의에 먹히우고 만다는것이였다.

아이젠하워는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의 정부들을 반대하는 비밀활동들을 벌릴데 대한 지시들을 미중앙정보국에 거의 매일이다싶이 떨구었다.

특히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쟁을 비롯한 대외침략전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마지막시기에 감행된 《아이젠하워신공세》와 1954년 과떼말라에 대한 무력간섭 등이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덜레스는 봉쇄정책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데 너무도 피동적이라고 하면서 동유럽을 쏘련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곧잘 말하군 하였다.

만일 쏘련이나 그 위성국들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유세계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한다면 대량보복을 가한다는것이 아이젠하워행정부의 립장이였다.

아이젠하워는 대량보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은 《만일 그러한 나라들이 그 어떠한 행동이라도 개시한다면 그들을 즉시에 지옥에 날려보내는 힘》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공군력과 핵무장을 중시하였으며 그리하여 핵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쟁사환군들은 핵전쟁의 마차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4년 3월 1일 미제가 야만적으로 수소탄시험을 감행한 비키니섬은 핵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미제의 반인륜성과 해독적후과를 그대로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1952년 11월에 원자탄에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탄을 제작한 미제는 태평양의 비키니섬에서 1954년 3월 최대크기의 수소탄시험을 감행하였다.

미제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탄의 1 200배의 위력에 해당되는 수소탄시험은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비키니섬부근 주민들에게 참혹한 피해를 입히였다.

시험진행 당시 위험구역밖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어선 《제5후꾸류마루》에도 죽음의 재가 날려와 20여명의 어부들이 방사선피해를 입었으며 그들중의 절반이상이 차례차례 고통속에 죽고 생존한 어부들중에서도 여러가지 질병들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에서 첫 원자탄피해국으로 된 동시에 첫 수소탄피해국으로까지 되였다.

특히 식품안전문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식료품과 먹는물은 방사성오염원천으로 되였다.

이 수소탄시험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미제는 바람방향이 뜻밖에 갑자기 달라져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1994년 미국회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폭로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핵시험을 하기 이미 7시간전에 미공군장교들은 바람방향이 달라졌다는 기상보고를 받았으며 미해군함대도 주변해역에서 남쪽으로 30㎞정도 피난할데 대한 지시를 받았으나 주변의 평화적주민들에게는 아무러한 경고도 없이 이 야만적인 수소탄시험이 감행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는 흉악한 살인마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의 핵시험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반인륜적행위라는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였다.

미국은 20세기초에는 큰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미쳐날뛰였다면 2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핵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이젠하워의 무분별한 핵야망은 지어 동맹국들의 비난의 대상으로까지 되였으며 1960년 일본을 방문하려던 아이젠하워는 이 나라에서 드세차게 일어난 반미시위에 질겁하여 방문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키니섬의 참사는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제의 핵몽둥이를 분질러놓지 않는다면 인류는 무서운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라는 교훈을 세상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주고있다.

력사의 고발

국장에 새겨진 호전성

흰머리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이다.

흰머리독수리는 미국과 카나다일대에서 사는 독수리의 일종으로서 뭇새들의 왕으로 불리우며 현재 사냥과 환경오염으로 4 000여쌍밖에 남지않아 멸종명단에 들어 사냥금지대상으로 되였다. 그 흰머리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으로 되여있는것이다.

미국국장의 중심에도 흰머리독수리가 새겨져 있다.

국장은 나라의 주요표식으로써 국가의 특정한 중요상징물들과 건물들에만 새겨지며 해당나라의 권위를 상징한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후 제2차 대륙의회에서는 전문위원회를 내오고 거기에 국장도안작성을 위임하였다.

위원회에는 프랭클린, 아담스, 제퍼슨 등 이름이 있다는 미국정치가들이 망라되였다.

1782년 대륙의회에서는 미국국장설계와 사용법이 정식 비준되였다.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독수리는 지금까지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고있는 미제국주의의 상징이 되여 한쪽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가지를 흔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쟁을 상징하는 화살묶음, 원자탄을 흔들며 지구의 방방곡곡으로 날개를 퍼덕여왔다.

흰머리독수리의 날개밑에서 그리고 그 사나운 발톱밑에서 벌어진 살륙전은 얼마였으며 감람나무가지에 기만당한 민족들은 또 그 얼마인지 다 헤아릴수 없다.

그 날개가 한번씩 퍼덕이면 한개 주가 생겨나고 또 한번 퍼덕이면 또 한개의 식민지가 펼쳐지던 뭇새들의 왕 흰머리독수리, 아마도 앵글로색슨족의 우월감, 양키백인종의 우월감을 상징하느라고 흰대가리를 가진 독수리를 저들의 국조로 하고 국장에도 새겨넣은 미국일지도 모른다.

로골적인 교살폭언

제2차 세계대전후에 이르러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식민지나라인민들의 투쟁은 고조되여갔다.

독립국가들이 세계도처에서 생겨났다.

1946년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영국은 1947년에 인디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슈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1948년에는 먄마와 스리랑카가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49년에는 네데를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쫓겨났다.

프랑스는 식민지로 차지하였던 동남아시아지역을 고수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거세차게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으로 하여 1954년에 끝내 밀려나고말았다.

1960년 한해동안에만도 아프리카대륙에서 18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다.

오랜기간 미국의 손아귀에 든든히 잡혀있던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국가들도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간섭과 지배책동에 도전해나서면서 미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1943년부터 1989년사이의 기간에 도합 96개의

나라들이 식민지멍에를 벗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하기에 카터행정부시기 국무장관으로 있던 헨리 키신져는 《세계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로 더더욱 찢겨지고있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제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혁명적진출들에 대하여 본능적인 적대감을 가지고있었다.

로씨야와 중국, 메히꼬, 꾸바, 윁남, 니까라과, 이란 등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혁명들에 대하여 바로 그러하였다.

그것은 그 나라들에서 일어난 혁명운동들이 모두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자들을 목표로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가 반제적인 립장을 가지고있었으며 외국자본의 침투와 략탈을 불허한다는것도 미제가 이 나라들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한 중요한 리유였다.

오랜 기간 제국주의렬강들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면서 자기 나라의 풍요한 자연부원을 외래자본가들에게 략탈당하여온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외래자본가들을 반대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인것이다.

그런데 황당무계한것은 미제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통털어 공산권내에 들어있다고 들고나오면서 이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은 모두 모스크바의 지령에 의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내세운것이였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이든지 첫 시작도 바로 그 나라 인민들스스로가 뗐으며 그 수행 전과정도 그 나라의 혁명력량이 주력이 되여 진행된것이였다.

사실상 많은 신생독립국들은 랭전에서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하려 하지 않았다.

1955년 4월 29개의 아시아와 아프리카국가대표들은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회합을 가지고 그 어느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에짚트대통령 가말 아브둘 나쎄르는 《우리는 서방에도 동방에도 다같이 예속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중립주의적흐름이 자기의 잠재적동맹국들도 삼켜버릴수 있다고 보고있었다.

전쟁사환군 덜레스는 이에 대하여 반대립장을 정식 표명하면서 《이것은 공산주의에로의 첫걸음이나 같다.》라고 악의에 차서 떠벌였는가 하면 호전광 아이젠하워는《매 국가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랭전에서 어느 한편에 서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중립국가들까지도 포함하여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힘으로 짓뭉개겠다는 로골적인 폭언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침략과 간섭책동

오랜 기간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며 빈궁과 국내전쟁, 문맹과 경제적락후성, 미국대독점자본가들의 략탈에 시달려오던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도 1950년대에 이르러 반미감정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자기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간주해오고 있던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 첫 대상이 바로 과떼말라였다.

1944년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과떼말라에서는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 민주력량이 급격히 장성강화되였다.

그 시기 가난한 이 나라의 제일가는 토지소유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당시 라틴아메리카 전지역을 손아귀에

거머쥔 거대회사였다.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무려 3백만ac의 토지를 소유하고있었으며 철도, 항만, 선박, 전신전화망들을 소유관리하고있었다.

1951년 과떼말라의 좌익계인물인 제이커브 아르벤즈 구즈맨은 대통령으로 선거된 후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면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새 정부는 토지개혁법을 채택하고 석유의 탐사 및 채취에 대한 국가적독점을 선포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제에 추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조선침략전쟁에 자기 나라 군대를 파견하는것을 반대하는 등 독자적인 정책들을 실시하는 길로 나갔다.

미국의 분노를 더욱 자아낸것은 아르벤즈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약속한 토지개혁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가 소유하고있으면서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회사에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것이였다.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는 보상금접수를 거절하였으며 자기의 리권을 보호해줄것을 워싱톤에 요구하였다.

미국은 즉시에 과떼말라에 대한 원조를 중지

하였으며 미중앙정보국은 아르벤즈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비밀작전에 진입하였다.

미제의 반동출판물들은 과떼말라가 서반구에서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보루라느니, 과떼말라의 토지개혁이 볼쉐비크적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악선전과 비방중상을 일삼았다.

그러나 사실 아르벤즈대통령은 공산세력의 통제속에 있은것이 결코 아니였다.

미제는 반혁명적인 고용병들을 긁어모아 니까라과와 온두라스에 집결시키고 저들의 비행대와 지상무력까지 과떼말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대기시키는 한편 해상을 봉쇄하고 이 나라로 가는 모든 선박들을 수색하는 등 횡포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무기들을 과떼말라령토내에 있는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의 농장들에로 공중수송하였다.

미제는 또한 1954년 3월에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열린 제10차 범아메리카회의에서 반공결의안을 강압채택케 하여 반공의 간판밑에 과떼말라를 고립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무력간섭을 합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의 기도를 알게 되자 아르벤즈대통령은 모스크바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며 미제는

공산세력의 침투에 대하여 더욱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1954년 6월 18일 미중앙정보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과떼말라의 반혁명세력은 온두라스령토에서 출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군비행기들이 과떼말라의 수도를 공습하였다.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의 부르죠아투항분자들과 군부안의 반동적상층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투항하였다.

미제는 과떼말라반동들을 사촉하여 아르벤즈를 대통령자리에서 내쫓고 7월 9일 저들의 충실한 졸개들로써 군사독재정권을 조작해냈으며 새 친미괴뢰정부는 아르벤즈정부가 회수하였던 《유나이티드 프루트》회사의 토지를 반환해주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은 미제가 이때까지 떠들어대던 선린정책이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감정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당시 미국부대통령이였던 닉슨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였는데 곳곳에서 일어난 반미시위열풍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닉슨의 행각은 중도에서 저지되였으며 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판이 조성되였다.

아이젠하워는 너무도 급한 나머지 닉슨구출작전을 전개할것을 명령하고 작전명칭을 《푸어 닉슨》(가련한 닉슨)이라고 달았다.

1954년의 과떼말라사변은 미제야말로 라틴아메리카나라인민들의 원쑤이며 따라서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이 없이는 독립도,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과떼말라에서의 성공에서 쾌재를 부른 미제는 꾸바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날로 강화되는 반제진보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1950년이후에만도 라틴아메리카지역나라들에서 수십차례의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1965년 4월 도미니까에서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이 대중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미제는 4만 3 000명의 침략군을 들이밀어 4 0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1983년 10월 25일에는 무력으로 그레네이더를 강점하였다.

칠레와 니까라과, 빠나마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의 마수가 닿지 않은 곳이란 없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은 이렇듯 집요하였다.

평화의 악랄한 교살자

까쓰삐해와 흑해,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해에 의하여 둘러싸인 이란고원, 소아시아반도, 아라비아반도, 메소포타미아저지, 깝까즈지방 등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중동지역은 아시아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약 626만 4 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중동지역은 인디아양과 지중해연안지역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해상통로상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지리적위치로 하여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방과 서방을 련결시켜주는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되여오고있다.

1869년에 수에즈운하가 개통됨으로써 중동지역이 가지고있는 교통상요충지로서의 의의는 더욱 커지게 되였다.

중동지역의 전략적의의가 최대로 커지게 된것은 이 지역에서 원유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사막밑에 펼쳐진 원유바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개발비용, 수송의 편리성 등으로 하여 원유에 눈독을 들인 세계 각곳의 원유회사들은 세계적인 원유총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이 지역으로 줄지어 밀려들었다.

그중에서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해관계는 특별한것이였다.

미국독점자본가들과 반동지배층은 원유야말로 미국의 생사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미제는 중동지역에서의 원유자원쟁탈전에 그 어느 제국주의나라들보다 더 기승을 부렸다.

1950년대 당시 록펠러재단의 《스탠다드 오일》회사를 비롯한 미국의 원유회사들은 중동지역에서 나오는 원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있었다.

중동지역에서도 풍부한 원유자원을 가지고있던 이란은 미국의 중점대상이였다.

미제는 이란의 파흐라비황제로부터 약 40개의 미국회사들이 원유를 채취해가도록 승인받는 대신 미중앙정보국으로 하여금 파흐라비의 정치적 적수인 모함메드 모사데크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모사데크는 당시 이란의 총리로서 외국원유기업들을 국유화하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

이 시기 에짚트에서는 가말 아브둘 나쎄르가 중동지역에서의 서방의 리권을 배격하는 범아랍운동의 제창자로 등장하였다. 나쎄르대통령은 수에즈운하에서 영국세력을 제거하며 팔레스티나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낼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더우기 나쎄르가 쁠럭불가담운동을 제창해

나서자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리성을 잃고말았다.

덜레스는 《그래 량켠(쏘련과 미국)사이에서 놀음판을 벌리는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나라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단말인가!》라고 하였다.

1956년 미국은 에짚트가 농장지역들에 값눅은 전기와 관개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아스완언제공사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것을 거절하였다. 미제의 경제적압력은 에짚트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나쎄르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때까지도 영국이 차지하고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기로 하였다.

알 이스칸다리야에서 열린 대규모집회에서 식민지시대를 체험했던 나라 인민들 누구나가 가지고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쎄르는 《오늘밤부터 에짚트의 운하는 에짚트인들, 바로 우리 에짚트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당시 서방이 소비하는 원유의 75%가 전적으로 중동지역에서 나왔으며 그 대부분이 바로 수에즈운하를 거쳐 서유럽에로 수송되고있었다. 이 사활적인 무역통로가 차단될수 있다는 공포는 삽시에 자본주의세계를 휩쓸었다.

교활한 미제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나쎄르를 제압하기로 결심하였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수에즈지역을 침공하였으며 이틀후에는 여기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합세하였다.

에짚트군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횡포무도한 침략행위에 맞서 반격을 가하였으며 부르싸이드전투를 비롯한 일련의 전투들에서 영프군과 이스라엘군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에짚트인민의 정의의 항전을 견결히 지지하였으며 아랍나라들에서는 지원병이 모집되였다. 수리아, 요르단 등 아랍나라들은 영국,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전선에서의 패배와 국제적고립은 미제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통한 승리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더우기 이러한 공격행위는 나쎄르를 완전히 쏘련쪽으로 밀어놓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동지역에 쏘련이 세력을 뻗칠수 있다고 타산한 미제는 런던과 빠리, 텔 아비브에 즉시 무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영국, 프랑스 및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56년 11월 7일 0시를 기하여 전투행동을 정지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국, 프랑스침략군은 그해 12월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다음해 3월까지 에짚트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다.

미국의 립장으로 볼 때 전쟁의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것이였다. 에짚트는 수에즈운하를 완전히 차지하였으며 쏘련이 아스완언제공사를 맡아해주었다.

중동지역에서 날로 쇠퇴해가는 자기의 지위를 개선하며 동시에 이 지역에서의 리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젠하워는 1957년 아이젠하워주의를 발표하였다. 1957년 1월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제시된 아이젠하워주의는 덜레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작성되였다.

아이젠하워주의의 침략적목적은 중동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앙양되는 민족해방운동을 압살하려는데 있었다. 그는 중동지역의 그 어느 국가이든지 공산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그 나라를 도와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아이젠하워주의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은 중동국가들에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며 자신의 결심에 따라 이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아이젠하워주의의 선포는 중동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를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 지역 나라들의 내정에 자의대로 간섭하며 그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란폭한 통제를 실현하려는 미제의 침략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아이젠하워주의는 매개 국가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규범에 심히 어긋나는것일뿐아니라 국회의 동의없이 무력을 사용할수 없게 된 미국자체의 헌법에도 위반되는것이였다.

아칸소주출신 국회상원의원 풀브라이트는《백악관은 우리의 자금력과 무력을 초과하는 허무한 권력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을 …허무한 시기에, 허무한 지역의 허무한 나라들을 위해, 허무한 조건하에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 허무한 공백들을 과연 무엇으로 메꾸겠는가.》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미제는 아이젠하워주의에 따라 1957년에는 수리아를 반대하는 음모를 조작하였으며 1958년에는 레바논에 1만 4 000명의 미군병력을 파견하여 이 나라내정에 간섭해나섰다.

미제는 겉으로는 중동평화의 조정자로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일방적이고 편견적인 립장에서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 반레바논책동과 아랍

땅강점정책, 령토팽창야망을 적극 비호두둔해주며 그들을 내세워 저들의 침략적인 대중동전략을 실현하려 꾀하였다.

파키스탄의 한 정치인물이 중동에서 이슬람교도들을 반대하여 유태복고주의정권이 감행하는 학살만행의 최대의 지지자는 미국이라고 단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까지도 그 해결전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중동의 첨예한 정치군사정세는 이 지역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틀어쥐고 이 지역 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의 교활한 책동의 산물이다.

중동의 암과 미국

아랍세계는 물론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배격받고있는 이스라엘을 유독 미국만은 언제나 비호해주고있다.

미국이 외토리인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해나서고있는데는 사상적공통성과 함께 그럴만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것은 우선 미국에서 사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있다는데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되여 살고있는 유태인

들이 다 그러하듯이 미국에서 사는 600여만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은 유태인국가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조국으로 간주하고있다.

1948년 이스라엘국가가 창건된 후 미국에서 사는 유태인들은 줄곧 이스라엘의 생존과 발전에 관심을 돌리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저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밀접히 해나가도록 하였다.

미국인구에서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률은 비록 2.7%밖에 안되지만 그들이 미국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그것은 유태자본가들이 미국독점자본가들속에서 막강한 경제적 실력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가운데서 20%는 유태인들이다. 그들은 미국강철공업의 25%, 모피공업의 90%, 식료가공공업의 60%, 영화기업체의 40%를 장악하고있으며 많은 출판, 보도, 선전수단들을 통제하고있다.

또한 미국의 유태인들은 수많은 친이스라엘조직들을 가지고있다. 이 조직들은 강력한 원외활동집단들을 형성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있다.

유태인집단에는 300개의 전국적규모의 조직과 수천개의 지부들, 4 500여개의 유태교회당들,

300개의 지방적인 유태인쎈터들, 수백개의 구락부와 동업자로조들, 2 800여개의 중학교들, 수십개의 고등학교와 대학들, 60～70개의 병원들이 망라되여있다.

이것들은 미국정부의 정책 특히 주요정책작성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현재 워싱톤에서 이스라엘의 리익을 수호하는 임무는 주로 미국이스라엘공보위원회가 맡아보고있는데 미국월간잡지 《애틀랜틱크》에 실린 글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외교적리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법안들이 미국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있다가 불길한 정황이 조성되면 4시간안으로 성명을 작성하여 상, 하원의 매 의원들과 해당한 위원회 상무성원들의 책상에 가져다놓군 하여 그들의 립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미국국회에서도 친이스라엘국회의원들은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1974년 12월 유엔에서 팔레스티나에 옵써버의 자격을 줄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을 때 71명의 미국회 상원의원들이 련명으로 대통령 포드에게 편지를 보내여 이 결의가 타협으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1975년 에질트－이스라엘의 제2단계 회담이

결렬되였을 때 당시 미국무장관 키신져(유태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제공을 일부 중지한다고 아닌보살의 너스레를 피우자 즉시에 76명의 상원의원들이 련명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여 《이스라엘의 군사적,경제적요구는 응당 융통성있게 처리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은 견결히 이스라엘편에 서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형성이후 100여명의 유태인들이 국회의원, 주지사로 선출되였으며 《3극위원회》, 《브르킹스연구소》, 《대외관계리사회》 등 두뇌진들에도 유태인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있다.

미국의 다른 민족출신 국회의원들도 미국에서 살고있는 유태인들의 지지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감히 노엽히려 하지 않고있다.

력대적으로 미국의 유태계자산가들은 공화, 민주 량당에 선거자금을 희사하군 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언제나 량당이 앞을 다투어가며 유태인들의 선거표를 그러모으고있다.

미국에서는 유태인선거자들의 90%가 투표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전체 투표자수의 7%를 차지한다. 그들중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거기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다른 선거자들의 표까지 합하면 선거자들의 약 20%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있는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손탁에서 자라난 나라이기때문이다.

일찌기 1917년 윌슨대통령은 민족자결을 지지한다는 구실밑에 영국이 내놓은 《벨푸어선언》을 지지함으로써 팔레스티나땅에 유태인들의 민족국가를 창설하는데 동의하였다.

그후 미국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결의문들을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이 약화되자 미국은 유태복고주의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기본역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살고있던 유태인들이 대량적으로 팔레스티나로 이주하는것을 적극 지지하고 부추겼으며 그들에게 자금과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

1947년 미국은 권모술수를 다하여 유엔에서 팔레스티나를 분할할데 대한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국가창건이 선포되자 10분도 못되여 선참으로 승인하였다.

후날 유엔주재 이스라엘대사는 이때의 심정을 피력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친선의 찬란한 빛발은 이스라엘의 고독감을 깡그리 몰아버렸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에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대량 제공하였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8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원조액은 250여억US＄에 달하였는데 그중 절반은 기부금이였고 나머지도 장기저리자대부였다.

미국은 언제나 선진적인 기술과 새 제품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였다. 이스라엘이 아랍나라들과의 대결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하고있는것은 또한 문화와 정신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련계가 특별히 밀접하다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유태계미국인들의 추동과 영향하에 미국의 문화계, 보도계, 과학계, 체육계 인사들과 정계인물들이 빈번히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스라엘의 많은 교육기관들과 문화기관들은 대체로 미국정부와 유태계미국인들의 재정적방조에 의존하고있다.

미국은 이밖에도 저들의 중동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이스라엘이 노는 특수한 역할을 중시하고있으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지탱할수 있는 전략적지탱점, 미국의 전략적재부로 되고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의 분기점에 있으며 서쪽은 지중해를 면하고 남쪽으로는 홍해로 통할수 있고 여러 아랍나라들과 접하고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리적위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동지역에서의 전략적지탱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이스라엘을 리용하여 아랍나라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미국이야말로 유태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사심없는 지원을 주는 나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사실 미제가 극구 도와주는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되여주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이지 오랜 세월 수난속에서 신음해온 절대다수 유태인들은 결코 아니였다. 더우기 미제는 유태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방조가 필요될 때에는 그를 외면하고 차버리군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전부터 나치스분자들은 유럽 전지역에서 유태인들을 철저히 멸종시킬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단계에 옮기고있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있는 심각한 유태인위기로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의 유태인들을 구원하기위하여 국내에서 엄격하게 실행되고있는 이민제

한정책을 다소 완화시키자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있었다. 그러나 미국지배층은 그러한 제기들에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었다. 아이더호주출신의 상원의원 윌리엄 보러는 새로 유태인이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미국국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리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의 반동관리들은 유태인들에 대하여 엄격한 이민입국규정을 실시하면서 미국에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유태인들이 필요한 법적문건들을 철저히 구비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나치스분자들이 란무하는 유럽에서 간신히 탈출한 유태인들은 미국의 관리들이 요구하는 법적문건들을 도저히 갖출수가 없었다.

1939년 중엽 도이칠란드의 함부르그항에서는 나치스분자들의 탄압으로 절망에 빠진 930명의 유태인피난민들을 태운 《쎄인트 루이스》호가 출항하였다. 배는 오랜 항해끝에 간신히 마이아미에 도착하였으나 미국해안경비정들은 이 배에 타고있는 유태인들이 충분한 문건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 리유로 입항을 차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청원서를 보냈으나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이를 외면하였다.

결국 배는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배에 탔던 유태인피난민들은 유럽으로 돌아가 여러 나라들에 널려져 살아야 하였는데 그러한 나라들은 그후 모두 도이췰란드의 강점하에 들어갔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으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까지도 《〈쎄인트 루이스〉호의 항행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을 하늘에 소리쳐 알린다.》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당시 미국무성에서 유태인문제를 책임지고있던 관리는 브레킨뤼지 롱이였는데 그는 철저한 미국본토배기보호주의자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태인이주민들은 미국시민들의 리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있었다.

미국무장관 헐은 유럽의 유태인들을 나치스의 박해로부터 구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곳에 모여있지도 않은, 또 정확히 몇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명백치도 않는 목적지로 날라가는데 드는 알수 없는 대가》를 강조하면서 이에 랭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 재무장관으로 있던 헨리 모겐터우까지도 헐국무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국무성의 너절한 처사로 하여 미국은 살인행위에 말려들게 된다. …사증검토 하나에만도 몇달이 걸려야 하는데 그러느라면 본인당사자는 시체로 되고만

다.》라고 비판하였다.

1944년에 들어와 미공군은 오스벵찜공업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이췰란드의 공장들을 폭격하였는데 그 공장들은 오스벵찜수용소의 가스실들과 화장로들이 위치한 장소에서 불과 5마일정도 떨어져있었다. 그런데도 미공군은 거기에는 폭탄 한발 떨구지 않았다.

력사학자인 데이비드 위맨은《불과 1시간이내에 죽게 될 수천명의 생명들이 아무러한 방조도 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에 있으며 또 그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계속 반복되게 되리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정부의 관리들이 어떻게 되여 그러한 살륙공장들을 이 땅우에서 쓸어버려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게 되였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오늘날 미제가 이스라엘에 그토록 극성을 부리는것은 유태인들을 진정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중동의 돌격대로 되여 날뛰는 한줌도 못되는 유태복고주의자들과 그리고 미국금융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차지한 극소수 유태인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의《진정한 벗》—미국의 태도인것이다.

통하지 않는 둔갑술

웰남전쟁으로 1960년대 세계를 소란스럽게 하던 린든 죤슨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후 미국대통령자리에는 공화당출신의 리챠드 엠.닉슨이 올라앉았다.

닉슨이 대통령직을 따낼수 있은것은 이미 웰남전쟁으로 하여 민주당에 침을 뱉은 선거자들이 행여나 공화당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를 가지고있은 덕이였다.

그러나 닉슨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전쟁호전광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닉슨은 종결을 가까이하던 웰남전쟁의 불길을 주변나라인 캄보쟈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였다.

닉슨과 국무장관 키신저는 방대한 자원과 시장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기어이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심에서 이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빈번히 벌려놓군 하였다.

닉슨행정부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정치적불안정들은 쏘련이나 혹은 공산세력의 조종에 의한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우군 하였는데 미국의 적지 않은 정치인물들은 사실상 그러한 현상들은 해당 나라들자체의 정치경제적

또는 종교적모순들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칠레의 알옌데정권을 전복시키는것으로 첫선을 보인 닉슨과 키신져가 다음으로 눈초리를 돌린 곳은 아프리카였다.

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리해관계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와 군사원조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저들의 돌격대들인 로데시아(오늘의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의 백인소수인종주의정권들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아프리카인민들의 자주를 위한 투쟁을 막아보려 하였다.

국내에서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빈궁선이하에서 허덕이고있는데 그들의 피땀을 짜내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전쟁책동에만 매여달리는 닉슨행정부에 대한 미국국민들의 분노는 더더욱 높아만 갔다.

침체속에 헤매이던 경제는 계속 하강선을 긋고있었다. 《경제부진(stagnation)》이라는 단어와 《인플레(inflation)》라는 단어가 합성되여 《스태그플레이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제용어가 바로 이 시기에 나왔다.

대학가들에서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끊기지 않았으며 거리들은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경찰들로

붐비였다.

오랜 정치적시련을 겪고 간신히 대통령직을 차지한 닉슨으로서는 참으로 골치아픈 일이였다.

사실 아이젠하워대통령시기 부대통령으로 있던 닉슨은 1960년 대통령선거때에 대통령립후보로 나섰다가 케네디에게 무참하게 패하고말았다.

더구나 1962년에는 캘리포니아주지사자리를 놓고 벌어진 선거경쟁에서까지 그는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 하였다. 다행히도 1968년에 대통령직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인 대책이 없으면 재선의 꿈을 포기해야 할 판국이였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회주의는 더욱 승승장구하고있었다.

조선과 웰남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부서져나갔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거세찬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길이 없었다.

이시기 사회주의중국은 쏘련에 뒤이어 원자무기를 보유하게 되였으며 세계적판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가고있었다.

미제는 새 중국이 탄생한이래 사회주의중국을 인정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대만《정부》만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라고 고집하고있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도 대만《정부》가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날로 높아가는 사회주의중국의 위력과 국제적위신은 제국주의동맹국들까지도 대만《정부》에 등을 돌려대도록 하였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영국까지도 사회주의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미제의 압력에 대하여 《무엇때문에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련계를 끊어야 한단말인가.》고 반발해나서며 베이징과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정부》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안팎에서 더욱 커가는 심각한 위기는 닉슨으로 하여금 오직 둔갑술만이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판단하게 하였다.

닉슨은 1972년 드디여 중국과 쏘련에 대한 방문을 결심하였다.

닉슨의 중국과 쏘련에 대한 행각은 명백히 패배자의 행각이였으며 사회주의국가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관계해결에 관심이 있는듯이 자기를 가장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쳐든 위기를 완화시켜보려는 위선의 행각이였다.

두 나라들에 대한 닉슨의 방문은 지난 시기의 관례를 벗어나 출판보도물들에 의하여 크게

부각되였으며 최대한의 정치적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전부 TV로 방영되였다.

한편 닉슨은 교활한 닉슨주의를 더욱 제창하면서 웰남전쟁종식을 서둘렀다.

1972년 11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시 닉슨은 별안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평화애호적인 인물로 둔갑하였다.

닉슨의 둔갑술, 그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저들의 본성을 감추고 세계인민들과 자국인민을 기만하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이였다.

실제적으로 닉슨이 1969년 7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괌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을 보이고 1970년 2월 미국회에 보낸 《1970년대의 미국대외정책서신》이라는데서 미국의 대외정책강령으로 선포한 닉슨주의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의 누거리대포밥을 침략전쟁마당에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저들이 안고있던 군사적부담을 덜고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헤여나오며 오만한 침략적정체를 가리우면서도 세계제패의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음흉한 속심을 가지고 미제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이 벌리고있던 침략전쟁을 《웰남화》, 《크메르화》, 《라오스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으며 특히는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꾀하였다.

허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것이다. 닉슨주의는 조선인민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존중의 진면모

1977년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지미 카터는 다시는 웰남전쟁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전시기에는 볼수 없을 정도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존중할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자기의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눈살을 찌프리고있었으며 그러한 운동들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를 위협에 빠뜨리고있다고 확신하고있었다.

당시 약 40만명의 미군무력이 해외에 전개되여있었으며 미국은 각종 군사교류의 명목밑에 많은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투책동을 감행하고 있었다.

해외무기판매액은 년간 100억US$수준을 넘어

서고있었으며 미중앙정보국은 세계의 모든 대륙들에서 맹활동을 벌리고있었다.

카터는 임기 초시기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흑인인권활동가이며 국회의원으로 사업하고있던 앤드류 양을 유엔주재 미국대사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러한 조치속에 감추어진 속심을 보지 못하고 카터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1979년에 양유엔대사가 개인자격으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들을 만나자 카터는 그를 대사직에서 해임하고말았다.

미국은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인정하는것을 거부하고있었던것이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미국의 진속을 어렴풋이나마 들여다보게 되였다.

그후 카터의 속심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일어난 사태들과 그 진척과정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였다.

빠나마운하를 둘러싸고 빠나마와 미국간에 일어난 사건들도 그중 한 실례였다.

빠나마인민들은 오래동안 빠나마운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그들은 미제가 1903년

에 자기 나라의 령토인 이 지대를 비법적으로 타고앉았다는것을 결코 잊으려 하지 않았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였던 로날드 레간을 비롯한 미국의 극우익보수분자들은 빠나마운하지대는 절대로 내놓을수 없는 미국령토의 한 부분이라고 떠들면서 어떻게 하나 이 운하를 고수하여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한편 카터는 빠나마인민들이 힘으로라도 이 운하를 찾을것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또 이 중요한 운하를 파괴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품고 있었다.

이 시기 새로 건조되는 선박들은 그 크기가 운하의 수문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으며 그리하여 이 운하가 가지는 의의는 다소 감소되게 되였다.

카터는 마침내 빠나마의 반미세력과의 협상을 결심하였다.

1977년 미제는 빠나마와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2000년에 가서 빠나마운하지대를 빠나마에 반환한다는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빠나마운하가 빠나마에 넘어간 이후에도 그 보호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것이였다.

결국 카터는 자기는 빠나마운하를 리용할수 있는껏 마지막까지 리용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

운하를 군사적으로 틀어쥠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활동에 리용하려 하였던것이다.

이란에서 일어난 사건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로 하여금 카터의 교활한 속심에 대하여 다시금 잘 알게 해주었다.

많은 이란사람들은 미국이 1946년의 위기시 이란의 파흐라비황제를 극력 지원해주었으며 1953년에는 그를 왕위에 올려앉히는 등 자기 나라 내정에 적극 간섭해온 사실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중앙정보국이 이란의 악명높은 비밀경찰을 훈련시켜준데 대하여 그리고 자기 나라에 막대한 미국제무기들이 쓸어들어온데 대하여 (1973년부터 1978년사이의 기간에만 하여도 무려 190억US＄분의 미국제무기가 이 나라에 들어갔다.) 생각하고있었다.

미국이 1979년에 전복된 파흐라비황제를 받아들일것이라고 선포하자 이란인민은 분노하였다. 격노한 군중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대사관성원들을 인질로 체포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이란황제를 당장 이란에로 송환하며 파흐라비황제가 도망치면서 가지고 간 막대한 재부를 당장 이란에 넘겨줄것을 요구하였다.

카터는 이란황제를 돌려보내거나 또 미국정부가 지난 시기 황제정권을 지원해준데 대하여 사죄할 마음을 꼬물만치도 가지고있지 않았다.

카터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한편 미국에 있던 이란정부의 자산을 동결시켰으며 동맹국들도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할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 4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자기에 대한 지지률이 낮다는것을 알게 된 카터는 보다 모험적인 행동에로 나왔다. 카터는 테헤란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작전을 개시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란의 사막에서 만난 모래폭풍으로 하여 생긴 기재고장으로 모험적인 비밀작전은 실패하고말았으며 게다가 황황히 진행된 철수행동시 2대의 비행기가 충돌하여 작전에 동원되였던 인원들중 8명의 미군병사들이 죽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론들은 카터가 인질들의 생명에 엄중한 후과를 줄 모험적인 작전을 명령하였다고 엄하게 질책하였다.

후날 한 인질은《하느님덕분에 모래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더더욱 군사행동일변도로 나아가는 카터의 외교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당시 국무장관이

였던 싸이러스 밴스까지 사임하였으니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벗으로 될것이라고 하던 카터의 진면모는 백일하에 드러난셈이였다.

미국이 동결했던 자산을 반환해주고 또 다시는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1981년 1월에야 이란위기는 해소될수 있었다.

1980년에 이르러 해외에 주둔한 미군병력수는 1976년보다 더 늘어났으며 국방비는 물론 해외무기판매액도 1977년의 830억US＄에서 1980년의 1 530억US＄로 거의 두배나 늘어났다.

카터의 얕은 수는 얼마 가지 못하고 드러나고 말았다.

카터의 존중이란 미국의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한것이였다.

악명높은 레간주의

미제의 침략정책은 레간시기에 이르러 더욱 호전적인것으로 되여갔다.

헐리우드출신인 로날드 레간은 대외관계문제에 대한 아무러한 경험도 그리고 국제문제와 력사, 지리에 대한 일정한 지식도 없이 1981년에 대통령직에 올라앉았다.

그의 사고방식은 단순하였으며 심중한 분석이

필요되는 때에조차도 문제처리를 매우 경솔하게 하였다. 단순한 사고력을 가지고있는 레간의 말에 따르면 《악의 제국》인 쏘련은 세계의 모든 《화의 근원》이였다.

레간은 강력한 군사력이야말로 쏘련의《위협》행위들을 제어하고 모스크바로 하여금 협상탁들에서 미국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면서 미국력사상 최대규모로 되는 평화시기 군사력증대정책에 매달리였다. 련방정부의 채무는 수천억US$에 달하는 국방비지출로 대폭 늘어나게 되였다.

1985년 당시 미국방성은 한시간당 2 800만 US＄씩 소비하고있었다.

핵군비축감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있던 레간은 각종 살인무기들의 제작과 배비에 광분하는 한편 우주공간에서의 요격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골자로 하는 전략방위구상을 제기하였다. 레간의 전략방위구상이란 한마디로 우주상공에 배비해놓은 인공지구위성들을 통하여 적의 공격을 격퇴한다는것인데 이러한 허황한 구상을 두고 다른 나라들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별세계전쟁이라고 하면서 비웃었다.

레간은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침략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미국의 오랜 외교관이였던 죠지 볼은 1983년에 미군이 까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그레네이더를 침공하여 이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자 《우리는 또다시 랭전의 칼바람에 떨게 되였다.》라고 개탄하였다.

1985년 레간은 미국은 쏘련과 그의 지지를 받는 정부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자유투사》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할것이라는 악명높은 레간주의를 발표하였다.

레간주의에 따라 미중앙정보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니까라과, 앙골라, 에티오피아의 반란세력들에 대한 지원에 열을 올리였으며 지어 직접 내전들에 개입하기까지 하였다. 미제는 합법적인 이 나라들의 정부들을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이 정부들의 전복을 다짐하였다.

엘 쌀바도르와 니까라과에 대한 레간행정부의 간섭모략책동들은 미제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날뛰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로 된다.

레간행정부에 있어서 엘 쌀바도르는 공산주의 위협이 가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되고있었다. 중부태평양연안에 위치한 가난하고 작은 이 나라는 이미 19세기부터 미제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미제는 저들의 주구들

을 내세워 이 나라의 정치적실권을 장악하는 한편 경제적예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 나라에서는 여러차례의 군사정변과 내란이 거듭되면서 정치적불안정이 계속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도처에서는 친미주구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시위와 파업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생활처지의 개선, 부정협잡선거반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한층 고조되였다.

친미반동정부는 수백여개에 달하는 살인분대라는 탄압도구들까지 만들어놓고 수천명에 달하는 혁명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 이 나라에서는 1980년 10월 여러 반정부무장세력들을 망라한 파라분도마르띠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여 민주정권수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레간은 진보적인민들의 이 정의로운 무장투쟁을 단시일내에 진압하기 위하여 반동정부에 대한 군사적지원규모를 대폭 늘이였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간섭책동을 규탄해나섰다. 미국내에서도 엘 쌀바도르에서의 국내분쟁은 그 무슨 공산

세력의 작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는 참을수 없는 억압과 빈궁이 이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손에 무기를 잡고 정부를 반대해나서도록 하였다는 항의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렇게 되자 레간은 이미 낡아빠진 트루맨과 아이젠하워의 도미노효과리론을 들고나오면서 만일 엘 쌀바도르에서 공산세력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공산세력은 메히꼬—미국국경에까지 진출하게 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레간은 또한 이것을 대쏘전략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중앙아메리카지역은 까리브해를 안고있다는것, 까리브해는 미국을 외부세계와 련결시켜주는 생명선이라는것, 만일 쏘련과 미국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쏘련은 자기들이 장악한 까리브해연안의 군사기지들을 리용하여 미국의 선박들을 공격하게 될것이라는 당치 않은 궤변을 내흔들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엘 쌀바도르에서의 무장내전은 근 10년이상 지속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였다.

레간은 니까라과에 대한 간섭에도 발벗고나섰다.

오래동안 군림해있으면서 야만적인 고문정치를 일삼아오던 소모사독재정권을 전복한 니까라과의 싼디노운동지도자 다니엘 오르떼가는 니까

라과인민은 《제국주의예속의 과거력사와 영영 인연을 끊어버렸다.》라고 선포하였다. 니까라과정부는 다시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진보적인 정치경제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니까라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변혁들을 두고 진심으로 기뻐하였으며 사심없는 지지와 방조를 제공하였다.

레간은 이렇게 되자 니까라과가 쏘련의 위성국으로 되여간다고 들고나오면서 이 나라의 합법적정부인 싼디노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나섰다.

1981년 미중앙정보국은 일명 꼰뜨라스라고 부르는 반란군을 조직하고 온두라스와 꼬스따리까에 둥지를 튼 비밀거점들에서 훈련을 주기 시작하였다. 무기제공과 군사지도가 뒤따랐다.

사실상 반란군에 가담한자들은 모두가 이전 소모사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였다.

온두라스와 꼬스따리까에 위치한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기지들에서 출발한 꼰뜨라스악당들은 니까라과령토에 침입하여 간부들을 살해하고 원유정제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지어는 병원들과 탁아소, 유치원들까지 파괴하군 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 미중앙정보국은 니까라과 항구들에 기뢰들을 몰래 부설하여 적지 않은

평화적선박들을 침몰시키는 만행도 감행하였다. 1984년 이 사실이 폭로되자 세계재판소는 미국은 니까라과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러한 습격파괴행위들이 급증함에 따라 니까라과정부는 악당무리들을 소멸하기 위한 무장행동의 도수를 더욱더 높이였다.

니까라과싼디노군의 반격이 더욱 강화되고 또 세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이 강해지는 속에 미국회가 하는수없이 꼰뜨라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레간행정부는 이번에는 루추하지만 남조선을 비롯한 괴뢰들이 꼰뜨라스악당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무기제공을 맡아하도록 하였다.

레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니까라과의 싼디노정부를 전복하고 이 나라에 친미괴뢰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무진애를 썼다.

일명 이란케이트라고도 부르는 이란—꼰뜨라추문사건도 결국은 궁지에 빠진 레간행정부의 궁여지책마저 파탄된데서 초래된 망신거리였다.

세계는 니까라과를 반대하는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감행하면서 거듭 마련되고있던 교전쌍방간의 협상기회들을 련이어 깨뜨린 미제야말로 라틴아메리카지역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의 교란자

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트루맨행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레간행정부에 이르는 랭전 전기간 미제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반대하여 온갖 모략과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원조와 투자, 미중앙정보국의 비밀활동들 그리고 미국의 상품들이 류포시키는 미국식문화 등을 통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모략책동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미제가 벌린 이러한 책동들은 궁극에 가서 세계를 제패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략탈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을 지향해나서자 미제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갖은 모략책동을 다하였으며 랭전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기편에 서라고 강요하였다. 우리편에 서든가 아니면 저편에 서라는것이 미제의 강도적요구였다.

오늘도 미제는 반미자주화로 나아가는 나라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테로를 반대한다는 명목밑에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의 《반테로전쟁》도 궁극에 가서는 세계적판도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미기운을 억누르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행위의 일환이다.

동정자의 탈을 쓰고

랭전종식후 미제는 군사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이전 쏘련의 붕괴로 하여 생긴 세력공간지대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특히 미제는 동유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발칸지역에 눈독을 들이고있었다.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발칸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련결하는 중요한 륙상통로로 되여왔으며 그리하여 고대로부터 여러 나라 통치배들사이의 치렬한 쟁탈대상으로 되여왔다. 여기에서도 특히 이전 유고슬라비아지역은 전략적의의가 대단히 큰 지역이였다.

그런데로부터 미제는 이 지역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간섭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드디여 미제가 그러한 구실을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꼬쏘보분쟁문제였다.

꼬쏘보는 유고슬라비아련방 쓰르비아공화국의 한개 주로서 쓰르비아와 알바니아국경에 위치하고있으며 지역의 주민은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인들이고 10%정도는 그리스정교를 믿는

쓰르비아인들이다.

1912년 제1차 발칸전쟁후 뛰르끼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쓰르비아왕국에 병합된 꼬쏘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 1월 유고슬라비아련방인민공화국의 가맹공화국인 쓰르비아인민공화국에 속한 꼬쏘보－메또히야자치주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1974년에는 꼬쏘보사회주의자치주로 개칭되여 실제상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가맹공화국들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1989년에 자치권이 박탈되였다. 그후 꼬쏘보는 쓰르비아공화국의 한개 주로 되였다.

꼬쏘보의 독립을 주장하는 조직들과 비밀리에 결성된 무장부대들은 자치권박탈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꼬쏘보의 알바니아인들과 쓰르비아인들사이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민족적 및 종교적 모순과 대립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그리하여 유고슬라비아정부는 꼬쏘보의 분리독립을 방지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꼬쏘보에 많은 군대와 경찰을 배치하였다.

1991년에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1992년 4월 쓰르비아공화국과 쯔르나고라공화국만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련방공화국이 세워지자 꼬

쏘보의 독립을 주장하는 조직들과 무장부대들의 활동은 더욱 고조되였다. 꼬쏘보해방군을 위시로 하는 알바니아인무장세력은 1997년말부터 꼬쏘보의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꼬쏘보에서는 알바니아인들과 쓰르비아인들사이에 류혈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에게 이 지역문제에 간섭할수 있는 좋은 구실을 마련해주는 계기로 되였다.

미제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꼬쏘보알바니아인들을 동정하는듯이 표방하면서 이른바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면서 꼬쏘보사태에 개입해나섰다.

미제는 유고슬라비아정부가 꼬쏘보에서 알바니아인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고있다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퍼치는 한편 꼬쏘보해방군에 무기를 대주면서 분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미제는 나토를 내세워 1998년 10월 13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선포한데 이어 발칸지역에 무력을 증강하고 대규모적인 군사연습까지 벌리였다.

1999년 2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로 미국과 서방렬강들로 이루어진 국제접촉그루빠의 발기로 프랑스의 랑부이에에서는 유고슬라비아와 알바

니아인들사이의 1단계 평화회담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국제접촉그루빠는 꼬쏘보에 폭넓은 자치를 줄데 대한 10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내놓고 유고슬라비아측이 이를 수락하고 평화협정의 리행을 감시하기 위한 3만명의 미군주도하의 나토무력을 받아들일것을 강박하였다.

이 요구는 유고슬라비아측의 배격을 받았다.

이어 3월 15일부터 프랑스 빠리에서 2단계 평화회담이 시작되였는데 미제를 비롯한 서방렬강들의 부당한 평화계획을 유고슬라비아측이 의연히 반대한것으로 하여 며칠만인 19일에 결렬되고말았다.

미제는 회담결렬의 책임을 유고슬라비아측에 넘겨씌우면서 유고슬라비아가 평화계획을 수락하지 않으면 공습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랭전종식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반도를 타고앉으며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독점체들을 구원해보려 하였다.

특히 미제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세계《유일초대국》으로서의 힘을 시위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내리눌러 《1극세계》의 창설을 다그치려고 하였다.

미제는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유엔안전

보장리사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제멋대로 나토무력을 동원하여 1999년 3월 《동맹의 힘》이라는 암호밑에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유고슬라비아공습에는 나토성원국들의 군용기 총 1 200여대(대다수가 미군비행기임)가 동원되였으며 미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각종 함선들이 참가하였다.

미군주도하의 나토의 야만적인 무차별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약 2 00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미제는 학교, 병원, 다리, 방송국 등 995개의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100여개의 문화기념비를 파괴, 파손시켰으며 유고슬라비아에 약 1 000억 US＄의 손실을 주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제가 유고슬라비아를 신형무기시험장으로 삼고 렬화우라니움탄과 독성세균을 전파하는 대량살륙무기도 꺼리낌없이 사용한것이였다.

미제는 또한 심리전특수그루빠들을 리용하여 심리전도 벌렸으며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해상원유봉쇄에도 매달렸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공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그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

갔으며 나토내부에서의 의견상이가 표면화되고 서방나라들에서 반전기운이 고조되였다.

중국대사관에 대한 나토의 공습 등을 계기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중국,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였다.

이러한속에 사태를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5월초에 서방 7개국과 로씨야는 꼬쏘보에서 유고슬라비아군이 철수하고 거기에 국제평화유지군을 전개할데 대한 정화제안을 내놓았다.

유고슬라비아정부가 그것을 원칙적으로 수락하고 6월 9일 자기 군대의 꼬쏘보철수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데 이어 그 다음날인 6월 10일 나토는 자기의 공습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78일간에 걸쳐 주권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대하여 감행된 미군주도하의 나토의 공습이 끝났다.

전쟁후 유고슬라비아의회는 유고슬라비아련방을 해체하고 쓰르비아 및 쯔르나고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꼬쏘보전쟁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반도에 무력을 들이밀어 《1극세계》창설목적을 실현하며 금, 은, 아연을 비롯하여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는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지배권

을 실현하기 위해 감행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일환이였다. 또한 미제는 이 전쟁을 저들의 신형무기시험장으로 여기면서 렬화우라니움탄을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마구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 지역의 환경을 심히 파괴하였다.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동정자의 탈을 쓰고 감행된 미제의 꼬쏘보전쟁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테로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톤에서 일어난 특대형습격사건인 9.11사건이 일어나자 부쉬를 비롯한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이 습격사건을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선포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그 무슨 테로와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테로를 종식시키겠다고 떠들어댔다.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출신의 빈 라덴을 그 주범으로 락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정부에 대고 라덴을 3일내에 미국에 넘기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탈리반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여기에 영국이 합세하였다. 미국주도하의 무력은 도시와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빈 라덴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작전을 벌렸다.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나라가 황페화된데다가 세력다툼으로 여지없이 분렬되여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정권은 손쉽게 전복되였다.

이에 재미를 들인 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저들의 《반테로전쟁》의 마지막목표가 아니라고 떠들어대면서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에로 전쟁을 확대할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다음번 목표를 이라크로 정하였다.

1991년에 있은 만전쟁에서의 패배, 1990년 8월부터 실시된 국제적인 제재조치 그리고 거듭되는 미제의 미싸일공격과 심리모략전의 후과로 사기가 여지없이 저락되고 황페화된 경제로 비틀거리고있던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만큼이나 손쉽게 먹어치울수 있는 먹이감이였던것이다.

사실상 미제는 자기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자주성이 투철하고 저들의 위협공갈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들은 피하고 손쉽게 먹어치울수 있는 나라들에만 접어들고있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미제는 그레네이더, 빠나마,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국력이 보잘것없는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행동에서는 주저를 몰랐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파괴와 반테로의 간판밑에 미제는 드디여 이라크전쟁을 도발하고 이 나라를 강점하였다.

지금 미제는 테로를 종식시킨다는 간판을 내흔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만이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테로분자숙청이요 뭐요 하면서 《반테로전》의 폭을 더욱 넓히려 획책하고있다.

또한 관따나모미해군기지를 비롯하여 세계의 곳곳에 비밀감옥과 수용소들을 꾸려놓고 세계의 여러곳들에서 끌어온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하다면 미제가 그토록 열을 올리며 《반테로전》에 매여달리고있는 진의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미제는 《반테로전》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더없는 간판으로 여기고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단 한시도 존재할수 없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이다.

랭전이 종식된 후 그 어디에서라도 《적》을 만들어내는것은 미제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세계도처에 널려져있는 방대한 해외군사기지

들, 수십만을 넘는 해외주둔 미군무력,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군수대독점체들 이 모든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리용하자면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적》을 찾아내야만 하였다. 한편 미제가 기본타격대상으로 삼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전략적의의가 매우 큰 위치에 있었다.

원유자원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타고앉는데서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미제는 《반테로전》의 첫 목표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정하였으며 더우기 오랜기간 내전으로 비틀거리고있던 이 나라에 덤벼들었던것이다.

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풍부한 원유자원을 가지고있으며 또 페르샤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나라는 군사전략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과시 미제가 군침을 흘릴만 한 대상이였다.

특히 중동지역의 강국이며 반미립장이 강한 오랜 숙적인 이란에 대한 군사적침공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미제는 《반테로전》의 명목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타고앉음으로써 이란을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협격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던것이다.

때문에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의 악랄한 《반테로전》은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 카에다》를 제거하고 이라크에서의 대량살륙무기파괴를 위한것이 아니라 원유자원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타고앉기 위한 미제의 날강도행위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적으로 이라크전쟁후에 진행된 전면적인 조사시 이 나라 경내에서는 단 한기의 대량살륙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의 그 무슨 《대량살륙무기에 의한 위협》설은 전쟁도발을 위한 날조극에 불과하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9.11사건자체가 미제가 꾸며낸 날조극이라고 들고나오고있다.

그들은 방대한 정탐모략기구들을 유지하고있는 미국이 그처럼 엄청난 사건이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전혀 몰랐다는것은 비론리적이라고 하면서 그를 반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여 미국반동지배층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의 《반테로전》책동은 그 무슨 테로의 근절이나 대량살륙무기의 파괴를 목적에 둔것이 아니라 석유가 풍부한 지역을 거머쥐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살인과 공포의 대명사 3K단

일명 쿠-쿨락스-클랜으로 불리워지는 3K단, 오늘도 미국의 거리와 골목들에 배회하는 테로와 범죄의 대명사인 3K단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산업자본가들은 형식적으로나마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제창해나서면서 남부농장주세력의 기반인 노예제도를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노예농장주세력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로부터 노예농장주들은 노예제도를 청산하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하여서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남부의 여러 주들에서는 극악한 비밀단체들이 출현하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며 적극적인 단체가 바로 3K단이였다.

테네씨주에서 생겨난 남북전쟁참가자(남부군)들의 비밀단체인 3K단은 남부의 전지역으로 파급되였으며 테로조직체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놈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해보려고 시도하는 흑인들에 대한 공갈과 폭력행위들을 일삼았다.

야간습격, 태형, 구타 지어는 살인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일부 지역들에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공공연히 테로가 감행되였다.

3K단은 로력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자기들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흑인들의 지향을 철저히 억제하려 하였으며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일부 백인들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여 여러 주들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하던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있던 일부 백인들과 흑인지도자들이 살해되였다.

해방노예들에게 교육을 주던 학교들도 테로의 대상으로 되였다.

3K단의 폭력은 인종주의적감정의 가장 극단적인 분출이였다.

3K단의 활동은 미국고위지배층의 공공연한 비호묵인속에 진행되였다.

3K단성원들의 만행에 대한 처벌은 거의나 없었으며 그리하여 남부의 여러 주들에서 노예농장주세력의 리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성원들은 대부분이 권력의 자리에 다시 올라앉게 되였다.

사실상 3K단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 남부제국에서만 벌어진것이 결코 아니였다.

정계의 적지 않은 고위상층인물들도 이 단체의 비밀성원들이였으며 3K단의 모든 활동들은 미국지배층의 공공연한 지지와 비호를 받았다.

이 단체는 여론의 압력밑에 비록 1872년에

형식상으로는 비법화되였으나 그후에도 계속 조직적범죄행위를 감행하여왔으며 특히는 흑인인권운동이 강화된 제1차 세계대전후와 경제대공황시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계속 세력을 강화하여 초기에는 보이지 않는 남부제국에 불과하였다면 지금은 너무도 크게 보이는 아메리카제국으로 되였다.

현대에 들어와서 3K단이 날뛰기 시작한것은 레간행정부시기부터였다. 1980년 대통령선거때 3K단성원들은 호전광 레간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는데 사실상 힘의 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와는 끝장을 보겠다고 하던 세계제1의 반공광신자 레간과 3K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견해는 많은 경우 일치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3K단의 기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2008년 대통령선거가 한창 고조되고있던 11월 루이지아나주의 한 도시에서는 3K단의 우두머리가 자기 테로단체에 가담하려다가 결심을 달리한 한 녀성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10월말에는 켄터키주에서 3K단성원 2명이 88명의 흑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려다가 적발되였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쥬디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앞에 대통령선거후보자로 누구를 지지

한다는 표말을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집대문에는 흰색뻬끼로 《KKK》라는 글자와 함께 《백인의 힘》이라는 글자가 씌여져있었다.

하다면 만사람의 규탄과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3K단이 어째서 미국에서는 이렇듯 보무당당히 활개치고있는것인가.

3K단은 결코 몇몇 극우익분자들의 집단이 아니다. 이 악마의 범죄집단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이 생겨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인간증오, 인종차별사상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것이다. 결국 3K단과 미국반동지배층은 한배속인것이다.

실제적으로 3K단의 성원들중에는 농장주들과 자본가, 상인들도 있는가 하면 미련방수사국과 미중앙정보국의 요원들, 지어는 고위정객들도 들어있다.

미국에서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는 흑인들에 대한 테로와 구타행위들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3K단이고 루터 킹을 비롯한 흑인인권지도자들에 대한 암살만행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3K단성원들이였다. 폭력과 공포, 살인과 방화의 대명사 3K단은 아직도 흑인들과 진보력량에 대한 아메리카제국의 가장 믿음직한 폭압도구의 1번수로 활개치고있다.

미제국주의가 있는 한 3K단의 테로는 결코 종식되지 않을것이다.

《악의 축》은 누구인가

제43대 미국대통령 죠지 더블유. 부쉬(2세)가 2002년 국정연설이라는 일반서신과 그 이후 플로리다주의 한 미공군기지에서 한 연설이라는데서 조선과 이란, 이라크가 《악의 축》을 이루고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이 나라들을 념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한 때로부터 악과 축에 대한 험담이 시작되였다

부쉬가 들고나온 괴이하기 짝이 없는 《악의 축》론은 즉시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여론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자들과 미국내에서도 부쉬의 망발을 두고 반대론의가 분분하였고 《악의 축》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까밝혔다.

대학시절 불망나니짓을 하면서 락제나 간신히 면하던 유명한 정치문맹자가 내뱉은《악의 축》론으로 말하면 리론적근거나 자료적타당성에 있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잠꼬대같은 독설이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가상적인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야 미국군수독점체들의 비위를 맞출수 있고 배를 불려줄수 있으며 군비확장의 구실을 꾸며댈수 있다고 타산한 미제는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있지도 않은 인권과 종교문제, 핵문제와 대량살륙무기문제를 들고나오면서 그 무슨 의심이요, 약속리행이요 하는 악담을 퍼부으며 광기를 부려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9.11사건이후에는 분별과 리성을 잃고 무턱대고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우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원래 악이라면 선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부당하여 도덕적기준에 맞지 않는 나쁜짓을 말하며 축은 그 어떤 물체가 한 직선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 직선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가상적인 직선을 이르는 말이다. 물리학적개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축이란 하나의 리념으로 련결된 동맹관계라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부쉬는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없이 조선과 이란, 이라크에 거꾸로 된 감투를 망탕 씌우면서 그 어떤 관계도 없는 나라들을 하나의 《축》으로 규정하는 궤변을 내뿜었던것이다.

조선과 이란, 이라크는 그 어떤 동맹국도 아니

고 리념상으로나 제도상으로 보아도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우선 조선은 존엄있고 자주적인 나라로서 주체사상을 지도적리념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이고 이란과 이라크는 이슬람교국가이다.

게다가 이란과 이라크는 8년간의 전쟁으로 그때까지도 어성버성한 관계에 있었고 조선과 이라크는 국가관계까지도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형편이였으며 린접국가는 더더욱 아니였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근거하고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무지한자의 황당한 궤변이며 청맹과니의 잠꼬대였다.

악과 선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모르는 부쉬가 《악의 축》론을 제창한것은 악의 화신이며 그 제국인 미국을 《선》으로 묘사하고 저들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을 《악》으로 락인하며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날강도적인 론리가 아닐수 없었다.

부쉬가 자기편에 서는 나라들은 무작정 선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악으로 즉 미국식기준으로 세계를 선과 악으로 제멋대로 가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로련합은 《선의 축》으로, 저들이 함부로 《테로》, 《불량배》모자를 씌운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것이야말로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을 뒤바꾸어놓은 악의 교리였다.

세상에서 진짜 악의 제국, 세계최대의 악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력사는 악의 력사이며 미국의 정책은 악으로 일관되여있는 악의 정책인것이다.

테로왕국

테로는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국의 생존방식이다. 그러기에 테로와 미국은 시암쌍둥이이며 미국을 가리켜 테로왕국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테로》소동을 일으키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테로는 원래 정치적반대파인물이나 대립되는 나라들을 폭력이나 음모적인 방법으로 살해, 전복하거나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행위로서 진보적인 인민들에게 가하는 반동세력의 야만적인 살륙이고 폭행이다.

테로는 그 첫시기부터 극악무도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국가들사이의 관계가 전쟁상태에 이르거나 나아가서 지역정세를 긴장시켜 국제정세전반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부터 1937년 11월 《테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였다.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테로문제와 관련한 유일한 다방조약으로서 협약에 의하면 테로란 국가수반 또는 사회정치적인물들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테로에 쓰이는 무기나 물자, 수단들을 준비, 양도, 공급하는 행위, 테로분자들과 공모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이 나온 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으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응당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시간이 감에 따라 국가테로와 국제테로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테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주고 테로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국제법적제도를 수립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지난날의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제야말로 국내테로, 국제테로, 개인테로, 국가테로의 왕초이며 테로의 총본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우선 국가형성시초부터 테로로 나라를 세우고 령토를 늘인 테로국가이다.

십자가를 메고 칼춤을 추며 아메리카대륙에 쓸어들어 무려 8 900여회의 원주민사냥전쟁을

벌려 수천만명을 헤아리던 원주민들을 살륙하고 수천만명의 아프리카흑인들을 랍치, 매매하여 노예로 만든 테로폭력배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흑인들에 대한 린치와 테로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테로국가의 최고전형도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암살, 폭탄테로, 총기란사, 유괴, 랍치 등 천태만상의 테로가 란무하는 무법천지의 테로국가이다. 한두명도 아닌 여러명의 미국대통령이 테로당한 사실만 보아도 미국자체가 세계최악의 특대형테로국가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1995년 4월 무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오클라호마시련방사무소 건물폭탄테로는 수사결과 미국내의 극우익단체의 범행이라는것이 드러났다. 230여명이 죽은 그 이듬해 7월의 T.W.A항공회사 려객기공중폭발사건을 비롯하여 특대형테로사건들은 다 미국내에서 상습적인것으로 되여있는 테로의 단면이다.

10대의 소년이 9.11사건을 모방하여 소형비행기로 건물을 들이받고 죽는 나라, 소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 뛰여들어 총기란사로 동료학생들을 무리로 죽이는 무법천지의 나라, 녀학생들이 폭행이 무서워 교정길도 혼자 걸을수 없는 나라, 복면강도들이 은행과 상점을 털고 금품과 재산을 노린 어린이유괴와 청부테로가 란무

하는 나라, 폭탄테로와 건물폭파로 죽이고 복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나라가 바로 테로국가 미국이다.

오늘 백악관은 테로작전소굴로 되고있으며 미국방성과 중앙정보국은 테로집행기구로, 군수독점체들은 테로무기생산기지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야만적인 국가테로, 군사테로로 특징지어지고있다.

력사의 반동이며 세계지배세력의 왕초인 미국은 침략에서 살길을 찾는 자체의 생존방식으로부터 타국과 타민족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인명재산을 해치는 국제테로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

1960년 민주꽁고에서 진보적인 루뭄바정부가 세워지자 그것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미국은 곧 질서유지라는 구실밑에 무장테로를 감행하여 정부수반 루뭄바를 살해하였다.

칠레의 알옌데가 1970년 9월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제는 그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1973년 9월 군사깡패 삐노체뜨를 사촉하여 알옌데대통령을 무참히 살해하고 친미군사정부를 수립하였다.

자주적으로 나가던 모잠비끄대통령 마셸이 탄 비행기를 공중폭파한 암살사건, 1986년 4월 60여대

의 군용기를 출동시켜 리비아지도자의 저택을 비롯한 여러곳을 맹폭격하여 그의 딸까지 죽인 가다피암살미수사건, 까스뜨로를 비롯한 꾸바지도자들에 대한 끈질긴 암살미수사건 등 미제가 감행한 테로사건들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40여년간에 미국이 조작한 군사정변은 100여회에 달한다.

1989년 12월 빠나마침공때 미국은 미국인보호라느니, 민주주의수호라느니 하는 엉뚱한 구실밑에 군사적침략을 감행하여 무고한 빠나마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였으며 저들의 야망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국가수반직을 차지하고있던 노리에가를 붙잡아 40년징역형을 들씌우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1976년 꾸바려객기를 공중폭파시킨것도 미국이고 1985년 에짚트려객기를 랍치한것도 미국이며 1999년 5월 8일 유고슬라비아주재 중국대사관을 미싸일로 타격하여 주권국가의 외교사절들과 건물을 살상파괴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적정의와 공정성도 모르고 유엔과 국제법도 무시하는 악성적인 테로국가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나토와 작당하여 감행한 78일간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여 수천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하고도 《반테로》를 주패장처럼 흔들어대는 오만한 미국의 죄행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미제가 국제테로의 왕초라는것은 그들이 국제테로분자들을 키워내고 적극 비호두둔하는 세계최악의 테로지원국이라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이미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을 축출한 후 이라크통치를 위한 테로지원자금을 확보해놓고 테로분자들에게 자금을 대주었다.

오늘날에도 《반테로전》의 간판밑에서 수많은 진짜테로분자들과 테로조직들이 미제의 비호밑에 활개를 치며 돌아치고있다.

로씨야신문 《이즈베스찌야》는 《미국은 테로분자들을 맞이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반테로전》은 반로씨야적인 성격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자체가 국제테로를 주장하는 조직들과 련관되여있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미국의 고위인물이 저들이 이미 가장 위험한 국제테로단체명단에 올려놓은 한 단체의 대표와 상봉한 사실을 그 실례로 들었다.

미국은 뽀싸다 까릴레스와 같은 극악한 테로분자들의 죄행을 묵인, 비호하고 보호해주고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최악의 테로후원국, 테로왕국이다.

대통령도 테로의 대상

온갖 악이 란무하고 테로가 횡행하는 썩어빠진 미국에서는 대통령들도 테로의 대상이 되여 저승으로 가는 일이 드문하다.

대통령살상률에서 미국은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16대 대통령 링컨이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5일째 되는 날에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총탄에 맞고 황천객이 된 때로부터 미국에서 대통령테로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후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백악관에 들어앉은 공화당의 가필드가 1881년 7월 한 실업자의 총에 맞아 그해 9월 19일에 저승으로 갔다.

25대 대통령 윌리암 맥킨리는 1901년 9월 전아메리카박람회에 참가했다가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탄에 맞고 며칠후 죽고말았다.

그런가 하면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1963년 텍사스주의 달라스거리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즉사하는 운명에 처하고말았다.

방탄유리안에서 취임식을 하고 방탄조끼를 껴입고 방탄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백악관

주변에 삼엄한 경비진을 펴기도 했지만 그게 다 허사였다.

40대 대통령 레간도 1981년 3월에 총탄에 맞아 죽을번 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가 총에 맞고도 살아남을수 있은것은 다행히도 그가 현대의학기술의 덕택을 입은 덕이였지 옛날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였다.

력대 대통령들중에서 암살자들의 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대통령은 죤슨, 루즈벨트(프랭클린), 트루맨, 포드, 레간이다.

놀라운것은 그 어느 대통령의 암살사건의 경우에도 암살을 직접 조직한자들이나 책임있는 배후세력에 대하여 똑똑히 밝혀내지 못한것이다.

허울좋은 인권옹호

인권이란 사회적존재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주적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권리, 인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인권의 보장과 보호문제는 오래동안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여왔으며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전시기에 노예매매금지조약, 소수민족보호조약, 국제로동기구헌장, 녀성권리보호협약과 같은 부문별 인권협약들이 체결되였으나 인권과 관련한 포괄적인 국제협약들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정은 결국에 가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파쑈세력과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세계반파쑈민주력량사이에 벌어진 준엄한 대결이였으며 인권을 위한 인류의 투쟁이 커다란 시련을 겪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권의 국제적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되였다.

이러한 국제적요구를 반영하여 유엔헌장은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국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다.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본질적요구를 밝히고 사람이 가져야 할 민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지적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요구에 따라 1953년에는 유럽인권보호조약이, 1969년에는 아메리카인권조약이 체결되였으며 인권의 국제적보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민사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그의 보충의정서가 채택되였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들이 채택됨으로써 인권의 국제적보호를 위한 법적기초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자기 식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세계인권공통기준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비추어보면서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요, 유린이요 하면서 걸고들었다.

특히 미제는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나라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례외없이 《인권유린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방중상하였으며 지어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지 않았다.

더우기 가소로운것은 미제가 해마다 그 무슨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어떤 나라들은 인권옹호에서 《모범》이고 어떤 나라들은 《보통》이며 또 어떤 나라들은 《락제》라는 식의 제멋대로의 인권점수를 매기면서 자기를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해나서고있는것이다.

인권유린의 왕초가 국제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려드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사실상 미국의 력사는 인권유린의 력사이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인디안들의 피바다우에 생겨나고 흑인노예들의 고역으로 살져왔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자국국민들에 대한 수탈로 비대해지고 성장하였던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인권유린의 수법과 방법들은 더욱 세련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계는 전시에 파시스트들이 감행한 흉악한 반인륜적인 범죄만행들이 다시는 지구상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파쑈전범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극악한 반인륜적만행들을 저지른 나치스전범자들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을 속심밑에 수급나치스전범자들을 비호하였으며 《공산주의에 의한 유럽의 지배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파쑈도이췰란드의 많은 전범자들을 몰래 해외로 빼돌려 저들의 앞잡이로 써먹었다.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에 의하여 당시 재판에 회부되였던 많은 전범자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고 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적지 않은 파쑈전범자들이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숨어살고있다. 더우기 미제는 랭전시기에 이르러 감옥에 갇혀있던 파쑈전범자들가운데서도 핵물리학자, 생물학자, 첨단무기전문가 등을 석방시키고 전문가대우까지 해주었다.

국제사법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약 1만명의 파쑈분자들이 미국공민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뻐젓이 살고있다는 예측을 내리였다.

그중에는 파쑈도이췰란드의 게스타포의 우두머리로 악명을 떨친 하인리히 뮬러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도이췰란드의 감옥들과 수용소들에 갇힌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무

참히 학살할데 대한 지시를 내린 악명높은 률러의 행방은 전후에 줄곧 흑막속에 묻혀있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공개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서에 의하면 그는 가명을 가지고 1946년에 도이췰란드에서 탈출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랭전시기 미제가 그를 반공전문가로 써먹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인권유린은 미국의 생존방식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른바 정치를 론한다는 정당들의 대회장들 역시 인권유린과 폭력의 활무대이다.

1968년 8월에 시카고에서 진행된 민주당전당대회에서는 또다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당시 민주당은 웰남전쟁을 놓고 심히 분렬되여있었는데 수천명에 달하는 반전항의자들과 청년국제당성원들이 민주당에 압력을 가할 목적을 안고 시카고에로 모여왔다. 이미전에 시카고경찰은 《폭도》들에 대하여서는 사격하여도 무방하다는 시장 댈리의 지시를 받았었다. 수만명의 경찰들이 24시간 비상근무상태에 들어갔으며 1만 2 000명의 군대와 주방위군무력이 총과 바쥬카포, 화염방사기들을 착용하고있을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힐톤호텔앞에서 시위행렬을 공격하여 시위자들과 기자들, TV촬영가들을 쫓아냈다. 전국각

지의 시청자들이 TV로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자들을 땅바닥에 쓸어눕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전당대회에 참가한 미국회 상원의원 리비코프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밀어놓고 《시카고의 시가들에서는 게스타포의 만행들이 감행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가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은 인권유린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감행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제의 침략으로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무고한 이 나라들의 평화적주민들이 피흘리며 쓰러졌다.

미제가 인권옹호요 뭐요 하면서 인권타령을 곧잘 늘어놓으면서 어제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에게 대량학살의 《죄명》을 씌워 그를 재판정에 끌어세우는가 하면 오늘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이 이랬소, 저랬소 하면서 헛나발을 불어대고있는것은 후안무치와 철면피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최대인권유린자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준엄한 력사의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으로 미제를 재촉하고있다.

관따나모는 미제의 인권옹호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2005년 미국방성은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에서 미군의 코란경모독행위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그때까지 미군의 코란경모독행위에 대하여 한사코 부인하여오던 미행정부가 할수없이 그를 인정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제사회계에서는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를 비롯하여 세계도처에 널려져있는 미군비밀수용소들에서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와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공군기지수용소에서 미제에 의하여 감행된 추악하고도 몸서리치는 인권유린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로된 관따나모에서의 이와 같은 만행들은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다시금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보이였다.

프랑스신문 《리베라씨옹》이 전한데 의하면 2001년 1월 11일에 설치된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에는 현재 40여개 나라의 국적을 가진 540여명의 수감자들이 있다고 한다.

간신히 이 수용소에서 석방되여나온 수감자들은 이곳 수용소에서 날마다 벌어지고있는 미군

의 몸서리치는 고문만행들을 앞을 다투어 고발하였다.

그에 의하면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구타는 물론 사람들을 견딜수 없는 자세로 오랜 시간 사슬로 묶어놓고있거나 공기조화기를 리용하여 감옥안의 온도를 급작스럽게 변화시키는 등 갖은 악행들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더욱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자료들이 미국회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나왔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의 취조자들은 한 《테로혐의자》에게 동성련애자라는것을 인정하고 녀성들의 가슴띠를 착용할것을 강요하였으며 그가 다른 한 남성수감자와 같이 춤을 추고 추잡한짓을 할것을 강박하였다고 한다. 녀성취조자들 역시 남성수감자에게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성적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미군취조자들은 수감자들이 기도를 못하도록 테프로 입을 봉하거나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아 잠을 못자게 하는 방법도 적용하였는데 어느 한 《고위급혐의자》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운명을 놓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상의 자료들은 미군부자체의 조사결과로서 극히 축소된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자료만 가지고도 미국이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에서 인륜도덕을 무시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꾸바신문 《그란마》는 인디아양에 있는 디에고가르시아섬도 미국에 의하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감금되여있는 수용소로 전변되였다고 하면서 이 수용소들에서는 미국이 훈련을 준 고문전문가들이 포로들에 대한 살인적인 고문을 감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대사령은 2005년 5월 25일에 발표한 년례보고서에서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를 가리켜 《미국의 전쟁범죄가 증가한다는 증거》라고 규탄하면서 그의 폐쇄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같은해 6월 10일 국제대사령은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 수감자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대통령은 이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제네바협약에 따르는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사실상 미국대통령자신이 2002년 2월 7일부 명령서에서 이러한 대우를 적당히 그리고 군사적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방

향에서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까밝히였다.

계속하여 성명은 미국대통령이 이처럼 엄청난 례외적공간을 허용해놓은것으로 하여 이곳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하루 24시간의 압박, 장기간에 걸치는 독방감금, 군견을 리용한 고문, 성적모욕 등 인권유린행위들이 벌어지게 되였다는것, 미국대통령자신이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 수감자들에게서 제3차 제네바협약 제5조에 따라 권위있는 법정앞에서 자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청취할 권리를 박탈했다는것 등을 폭로하면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미제의 만행에 대하여 전면공개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것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제대사령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가진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테로와의 전쟁》을 리유로 테로조직에 관여했다는 이슬람교도 등을 재판없이 장기간 구속하는 등 인권침해를 되풀이하고있으며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테로와의 전쟁》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는 사태를 일으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국제대사령 미국지부장 윌리암 슐쯔는 미국은 세계 여러곳에서 비밀수용소들을 운영하고있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학대와 고문을 받으며 비밀리에 죽어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세계도처에 있는 미군비밀수용소들을 철페할데 대한 목소리는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민주당출신의 한 미국회 의원이 《관따나모는 테로분자모집명분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선전수단으로 전락되였다》고 하면서 이곳 수용소를 즉시 철페할것을 주장하였는가 하면 전 대통령 카터까지도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를 비롯하여 미군이 관리하고있는 비밀수용소들을 최대한 빨리 철페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각계에서는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의 유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락인하면서 그와 같은 미군수용소들을 당장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나 미국반동지배층은 철면피하게도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악랄하게 감행되는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를 부인하면서 그 철페를 반대해나섰다.

2005년에 한 기자가 미국대통령 부쉬에게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실태와 관련한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을 제기하자 그는 뻔뻔스럽게도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미국은 세계도처에서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이다.》라고 국제대사령의 보고서를 전면부정하였다.

미국방장관도 《나는 집행부의 누구도 관따나모

수용소철페문제를 계획하고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철페를 반대하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관따나모미해군기지수용소철페를 떠들어대면서 대통령자리를 따낸 오바마 역시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서는 자기가 철석같이 한 공약을 외면하고있다가 이제와서는 헌신짝처럼 줴버리고말았다.

제반 사실은 미제가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인권옹호, 민주주의란 한갖 저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만행을 가리우기 위한 너울에 지나지 않으며 미제야말로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 인권유린의 왕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인권유린행위는 극심한 인종차별행위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오늘날까지도 인간을 피부색을 기준으로 《고등인종》과 《하등인종》으로 구분해놓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 지배와 착취를 일삼는 인종주의자들이 뻐젓이 활개치는 나라가 바로 인종주의의 천국인 미국이다.

유색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으로 첫발을 떼고 유색인종들의 피와 땀으로 살져온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인종주의로 하여 오늘날까지도 살인과 구타, 린치와 무권리속에서

신음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흑인들을 비롯한 미국의 유색인들이다.

미국에서 살판치는 인종주의의 최대의 희생자들은 인종평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흑인인권활동가들이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의 미씨씨피주지부 위원장 메드가 에버즈가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살해되였으며 알라바마주의 버밍험에서는 경찰이 인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의 비폭력시위행렬을 무턱대고 공격하였다.

1963년 9월에는 백인테로분자들이 일요아침례배가 벌어지고있던 버밍험 제16가세례교회당에 대한 폭탄공격사건을 일으켜 4명의 흑인소녀들이 살해하였으며 시카고의 대도로에서는 무고한 흑인청년들이 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경찰들의 란사에 벌둥지가 되여 목숨을 잃었다.

사실상 미련방수사국과 경찰의 적지 않은 요원들이 가장 반동적이며 악랄한 인종주의자들의 무리인 3K단 성원들이며 흑인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실행하는 테로분자들이기도 하다.

련방수사국의 한 요원은 1963년에 있은 버밍험 제16가세례교회당에 대한 폭탄공격을 비롯한 여러건의 테로사건들을 직접 조작하였다.

그러한 백인테로분자들이 미씨씨피주의 20여개의 흑인교회당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방화를 감행하였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시검찰관이라는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인종주의폭도들이 3명의 인권운동가들을 살해하였다.

1968월 4월 멤피스에서는 제임스 얼 레이라는 한 백인인종주의광신자에 의하여 흑인인권운동의 우수한 활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목사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5년에 보스톤종합대학을 졸업한 루터 킹은 철학박사학위와 세례교 목사자격을 받았으며 1957년부터는 흑인인권단체인 《남부그리스도교도지도회의》를 조직지도하였다.

1963년 8월 그는 25만명이상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모인 한 집회에서《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으며 흑인지도자들중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해나섰다. 흑인인권운동과 반제평화운동에 적극 참가한것으로 하여 그는 1964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다.

백인인종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루터 킹은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으며 그리하여 놈들은 끝내 그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것이다.

루터 킹의 살해는 흑인들의 크나큰 슬픔을

자아냈다. 전국각지의 흑인들은 그의 죽음의 책임은 다름아닌 미국의 인종주의에 있다고 절규하였다. 저명한 인권활동가였던 스토클리 카미첼은 《백인들의 미국이 지난밤에 킹을 죽였다. 백인들의 국가는 바로 우리들 흑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것이다.》라고 단죄하였다.

미국의 168개의 도시들에서 흑인들의 소요가 일어났으며 격노한 흑인들이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달려든 백인인종주의자들과 경찰들의 손에 또 34명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메릴랜드주 지사 스피로 애그뉴는 사나운 말을 마구 내뱉으면서 흑인지도자들이 《자기네 젊은이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줴쳐댔으며 시카고시장 리챠드 댈리는 흑인폭동자들에 대하여 사격하여도 무방하다고 경찰에 지시하였다.

미국의 인종차별과 증오는 미국에 주재하고있는 외교관들에게도 례외로 되지 않고있다.

1955년 미국주재 인도네시아대사는 휴스톤국제비행장에 있는 한 식당의 백인전용칸에서 봉사를 요구하였다가 봉사를 거절당했으며 버마의 교육상은 오하이오주의 한 식당에서 봉사를

거절당하였다.

가나재정상은 워싱톤에 있는 한 식당에서 봉사를 거절당하였다.

혹독한 인종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이 소식에 접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욕은 너무도 충격적이였다.

당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끌어당겨보려고 추파를 던지고있던 미국무장관 덜레스까지도 너무도 당황하여 즉시에 사죄전문들을 직접 발송하면서 미국에서의 인종격리제도는 《중대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우호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있다.》고 하였다.

미사법장관은 워싱톤특별구내에서 검은 피부색을 가진 외교관들이 당하게 되는 모욕들은 《세계가 우리 나라라는 집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는 창문유리와도 같으며 미국의 리익을 엄중히 손상시키고있다. 미국의 인종격리제도는 공산주의선전 방아간에 알곡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된다.》고 아우성을 쳤다.

오늘날 미국의 어용나팔수들은 이제와서는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인종평등의 시대가 도래한듯이 불어대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일매시각 유

색인들에 대한 구타와 살해, 린치와 공갈이 벌어지고있으며 절대다수 흑인들이 빈궁선이하에서 헤매이고있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압도하는 지표는 오직 두가지, 실업률과 사망률에서뿐이다.

오직 피부색 한가지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감히 저울질하고 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아메리카제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천국인것이다.

미국의 진면모 3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편집: 김준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5월

ㄱ-683554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45-6

9 789946 014456